

東北아시아 襦의 起源과 그 交流에 關한 研究

—4~8世紀를 中心으로—

복식학회 고문 박 경 자
상지전문대학 강사 조 선 희

目 次	
I. 序 論	1. 襦의 發生
II. 東北아시아의 地理的 條件과 時代的 背景	2. 襦의 傳播와 交流
1. 東北아시아의 地理的 條件	IV. 結 論
2. 東北아시아의 時代的 背景	參考文獻
III. 東北아시아 襦의 發生 및 交流	ABSTRACT

I. 序 論

服飾이 그 나라 民族의 상징이며 또한 生活文化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볼 때 복식의 개념은 우리에게 있어 자연적 소산물을 넘어선 문화적 산물로 인식되어진다. 또한 한 나라의 기본복식의 이해는 민족의상의 전승을 의미하며 아울러 계승발전의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上古時代의 基本服飾 중 上衣, 특히 襦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복식 起源의 發生 地域으로 볼 수 있는 東北아시아 地域에 관심을 두고 첫째, 襦의 成立에 영향을 준 地理적 환경과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둘째, 東北아시아 주변국가의 襦의 발생 및 전파에 따르는 공통요소를 비교 고찰하여 그 교류를 있게 한 상황을 연구하고, 셋째, 한국복식에서의 上代 우리나라 襦의 계통과 형태에 따른 특징을 알아봄으로써 기본복식인 襦의 복식사적 의미와 현재의 襦(赤古里)에 대한 위치에 대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기본복식의 하나인 上衣 중 특히 襦에 대한 명칭은 각 나라와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오늘날의 襦, 즉 저고리의 형태를 포함하여 上代服飾의 襦形態를 구별하기 위하여 길이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그 범위를 허리를 내려와서 엉덩이를 덮고 무릎위까지의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단 襦의 종류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명칭은 길이에 관계없이 포함한다. 또한 襦의 개념을 규정 짓는데 사전에 명시¹⁾한 바, 피부에 닿는 옷부터 겹옷의 襦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며 그 시기는 4~8세기경으로 한다.

II. 東北아시아의 地理的 條件과 時代的 背景

1. 東北아시아의 地理的 條件

韓國服飾이라는 主體를 正當하게 파악하자면 上古時代 우리 민족이 처해 있었던 地理的 環境과 他民族과의 접촉관계와 아울러 文化現象과 地政學的인 파악이 필요하다. 동북아시아 지형조건에서 Altai산은 東經90도 北緯50도線이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이 산맥을 기점으로 하여 중국대륙

1) 「大漢和辭典」, (東京:大修館書店, 昭和 31), p. 10715.

의 북동쪽에 위치하는 흥안령을 비롯, 서쪽의 몽고, 동남의 만주평야, 송화강 요하가 흐르는 대평원을 건너면 장백산맥이 가로막은 아래에 한반도가 이어진다. 이 반도의 동남쪽 끝에서 대마도 등의 섬을 건너면 九州를 비롯한 일본 열도에 이르게 된다.²⁾ 이 지역은 기후가 온난하여 농경이 가능한 남부만주, 한반도 및 중국의 황하, 양자강 유역을 포함하여 중국대륙에서 알타이 산맥~힌두쿠시 삼림선을 제외하고는 건조하고 한냉한 기후로 말미암아 이동민족의 특징을 내게 된다. 이들은 말을 타고 활을 쏘며 항상 이동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하에서 몽고는 유목이동, 만주는 유목이동과 농업토착, 중국·한국·일본 등은 모두 농업토착으로 그 특징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이들 중국·한국·일본의 지형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文化 또한 서로 밀접한 교류를 갖게 되었으며 문화와 더불어 복식도 많은 영향을 주었음에 틀림없다. 비교적 한냉한 기후조건에서 이동민족의 특징을 갖게 되고 騎馬民族임에 따라 服飾 또한 亞寒帶氣候에 적합한, 肢體를 완전히 감싸줄 수 있는 소매와 바지가랑이가 좁은 窄袖肢體型이 요구되는 北方系 衣服의 대표적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

2. 東北아시아의 時代的 背景

1) 韓 國

기원전 건국한 고구려는 4세기에 접어들면서 차츰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특히 중국과의 대열에서는 攻勢的인 성격이 두드러졌다. 370년 前秦과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문화정책에 과감성을 보였으나 내분으로 인해 그 후 국력이 쇠퇴한다.³⁾ 백제는 이 시기에 체제가 정비되고 新羅와 유대를 굳게 하게 되었다. 聖王때에 이르러 백제는 中國·倭와 外交關係를 확대하여 중국과 문물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일본으로 전파하기도 하였다. 신라는 한반도 동남부에 자리하여 고대국가체제를 완성하

고 세력을 확장하면서 통일을 위한 기반을 갖추었다.

2) 中 國

4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五胡十六國의 분쟁시기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 국가들은 대부분 胡族이 세웠던 것으로 漢人이 세운나라는 겨우 세 나라 뿐이었다.⁴⁾ 그 후 5세기의 南北朝時代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들 시대의 인구 이동은 대단히 빈번했던 것으로 복식 또한 교류가 많았을 것이다. 그 후 577년 隋가 開創되고 몰락하면서 唐이 建國되는 시기이다.

3) 日 本

三國志의 魏書倭人傳에 보이는 바에 의하면 서기 2세기말 경 일본에는 30여국의 작은 국가가 존립하였고⁵⁾ 6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소규모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한반도에서 많은 文化人과 기술자가 일본열도로 건너가게 되었다. 일본열도에 광범하게 퍼진 彌生文化가 한반도로부터 건너갔으며 많은 文化를 전하였다는 것은 服飾 또한 일본이 한반도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4~8세기의 동북아시아는 隋에서 新羅로 연결되는 東西勢力과 突厥·高句麗·百濟·倭가 연결되는 남북세력으로 판도가 나뉘어지면서⁶⁾ 인구적인 이동과 함께 문화적 교류도 활발하였다.

Ⅲ. 東北아시아 襦의 發生 및 交流

1. 襦의 發生

동북아시아 지역의 복식특성은 合衽前開型의 窄袖·直領·短上衣에, 下衣로서 袴를 착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여기에 귀족계급의 복식은 소매나 바지부리의 폭이 넓고, 歷史가 진행됨에 따라 上衣의 길이가 길어지고 袍를 禮儀用으로 착용하며 여자는 裳을 착용하기도 하였다.⁷⁾ 여기에서 특히 襦로 집중하여 그 발생을 살펴보면 襦는 기본적인

2) 朴時仁, 「Altai 文化史 研究」, (서울: 探求堂, 1970), pp. 3~4.

3) 李萬烈, 「三國時代史」, (서울: 지식산업사, 1976), p. 148.

4) 傅樂成, 「中國通史」, 辛勝夏譯(서울: 宇鍾社, 1981), p. 298.

5) 関斗基(編), 「日本の 歷史」, (서울: 지식산업사, 1976), p. 15.

6) 李萬烈, 「삼국시대사」, (서울: 지식산업사, 1976), p. 203.

의복착용의 목적을 우선적으로 하여 같은 上衣의 계통인 袍와 함께 防寒과 儀禮의 목적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그 발생의 목적은 그 지역의 기후와 환경조건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亞寒地帶에 알맞는 筒袖의 襦와 활동이 편한 袴의 발생은 필연적인 것이 된다. 이러한 기후조건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襦는 洋服의 上衣와 같이 길이가 자연스러우며 直領交衽制로서 半窄袖가 달려있다. 또 襦의 겹허리에는 帶를 束하므로 행동이 간편할 뿐더러 무기의 佩用에도 편리하다.⁸⁾ 이러한 전개형의 襦는 유라시아 대륙북방의 초원지대지방에서부터 발생하였으며 춥고 냉한 외기로 부터의 체온의 소모를 방지하기 위한 밀폐식의 수단으로 帶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전개형의 襦는 앞이 좌우로 나뉘어 잘 정돈되게 되며 우측앞과 좌측앞이 서로 여미게 되어서 가장자리가 헤쳐지는 것을 방지하였다.⁹⁾ 이와 같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胡服, 즉 바지저고리를 입었던 알타이계 복식의 민족은 북유럽에서 우랄·알타이 산맥을 통하여 시베리아 동부에 걸친 선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남인 漢族은 바지를 입지 않았다. 현재 전형적인 유물로 남아있는 胡服의 형태로 몽고의 Noin-ula에서 발굴된 흉노복이 있다. 이 노인·우라의 북방문화는 스키타이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북방문화권, 스키타이계는 고대 북방유목 기마민족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특히 B.C 7세기~ B.C 3세기에 걸쳐 흑해를 중심으로 거주하던 민족을 지칭하고 있다. 이들은 筒袖形의 左衽이며 臀部線까지 오는 襦를 착용하고 下衣로는 기마시 편리한 袴를 입었던 것이다(圖 1). 스키타이계 흉노의 문화인 노인·우라의 襦는 길이가 117cm이며 이것은 오늘의 上衣보다 조금 더 긴 것으로 무릎에 미치지 못하는 길이이며 당시 동북아시아 알타이 민족복식의 典型에 속할 수 있는 것이다.¹⁰⁾ 이 노인·우라를 기점으로 하여

고구려가 압록강 연안에 진출하여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였고 노인·우라의 유물은 漢代 소위 匈奴의 유적이 되므로 이미 漢族도 당시 이런 胡服을 채택하여 입고 있었으며 이 복식의 기본구조는 우리복식과 같은 계통을 가지며 이러한 胡服形態의 기본구조를 가진 복식이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植輪에 나타나 있는 복식과 그 계통을 같이 하고 있음은 이 三國의 복식계통이 한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襦의 傳播와 交流

1) 中國의 襦

한반도 주변국가 중 고구려·백제·신라 三國과 복식면에서 교류가 활발하였고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져온 중국은 원래 袍가 발달하고 남·녀 모두 裳을 입던 민족이었다.

B.C 307년 中國은 趙 무령왕의 호복채택 이후 그 복식의 祖型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상의 확인기점이며 실제의 호복착용은 훨씬 이전인 商·周代로 보인다(圖 2).

(1) 漢代의 襦

漢代 庶民의 常服은 袍를 비롯하여 單衣, 襜褕, 襦를 착용하고 下衣로는 裳, 袴를 착용하였으며 襦의 길이는 허리아래 혹은 무릎아래까지였다. 일반적으로는 襦, 袴차림을 하였다.¹¹⁾ (圖 3) (圖 4)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襦의 종류로 褐를 착용하기도 하였으며 대부분 麻布로 제작하였으나 간혹 繪으로 만들었고 帶로 여미었다. 노동에 종사하지 않은 선비와 노인들은 대부분 襜褕를 가장 많이 입고 長襦에 長裙을 착용하였다. 襦에는 黑色의 緣을 달았으며 의복은 寬博하고 曲裾袍에 大口袴이었다.¹²⁾ 婦女의 常服으로는 袍·襦·裙을 입었는데 上衣의 길이는 무릎까지로 襦袍라고 하는 長襦가 있었고 이윗은 緣邊을 장식하였다. 또 袿袴라 하여

7) 任明美, "中國의 民俗禮服形成 및 服飾變遷에 끼친 東北아세아 民族服飾의 영향에 관한 研究(博士學位論文,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1987), p. 63.

8) 李如星, 「朝鮮服飾考」, (서울: 白楊社, 1947), P. 113.

9) 深作光貞, 相川佳子, 「續衣의 文化人類學」(京都: PHP 研究所, 1983), p. 143.

10) 金東旭, 「增補韓國服飾史研究」, (서울: 亞細亞文化史, 1973), p. 63.

11)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台北: 丹青圖書有限公司, 中華民國 65), p. 84

12)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台北: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81), p. 61.

위에 襦, 아래에는 袴를 입었다.¹³⁾ 그러나 평상시 부녀들은 긴치마와 짧은 윗옷을 입기도 하였으며 “諸於”라 하는 큰 소매의 옷 즉, 袿衣에 속하는 옷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여자의 바지는 주로 褌(밀바대)이 있는 바지 “窮袴”를 널리 착용하였다.¹⁴⁾

여자의 襦는 남자에 비해 약간 길고 작업시에는 蔽藤을 착용하였고 깃·裾·袖口에 緣飾하고 袖口

는 좁고 소매전체는 폭이 좀 넓은 上衣였다.¹⁵⁾

이상의 자료에서 보면 漢代의 襦는 신분에 따라서 長襦와 短襦를 착용한 듯 보이며 領의 形態는 直領·方領·交領이 있었고 소매에는 筒袖와 廣袖의 혼용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여기서 漢代의 襦로 분류될 수 있는 명칭과 그 특징을 조사하여 본 결과는 다음의 表와 같다 <表 1>.

<表 1> 襦로 분류되는 漢代의 上衣 種類

명칭	褶 (留幕, 大褶) ²⁾	襦 (典領, 掩) ²⁾	禪襦 (短襦, 汗襦)	衫 (芟, 襦袷)	候頭 (解讀)	澤 (鄙祖, 羞袒)	袿 (諸於)
특징	· 겹옷 (숨을 두지 않은 겹옷) ¹⁾ · 襲 (껴입는다는 뜻) · 상의의 맨 위에 입는 옷	· 보온을 하기 위한 의복 ¹⁾	· 땀받이 襦 · 숨을 넣지 않은 襦 ¹⁾	· 풀을 베다는 의미 · 짧은소매의 저고리	· 衫의 소매가 좁은 것 ¹⁾	· 땀받이 옷 ¹⁾ · 속내의 역할	· 부인의 옷 ¹⁾ · 윗부분이 넓고 아랫부분이 좁은 형태
형태	· 袍와 비슷하나 짧은 길, 넓은 소매 · 무릎정도의 길이 · (圖 4)	· 反閉		· 反閉			
출저문헌	1) 禮記 2) 釋名	1) 釋名 2) 方言	1) 釋名		1) 釋名	1) 詩經	1) 釋名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漢代의 襦 名稱은 褶, 襦, 禪襦, 衫, 候頭, 澤, 袿 등의 여러 명칭이 있으나 그 형태와 특징에 대해서는 많은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반 庶民의 복식은 北方胡服의 특징을 가지는 통소매의 襦가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襦의 부분 명칭에 대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表 2>. 깃 부분의 명칭으로는 領, 禁, 衿 등이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系”는 끈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의미

를 살펴보면 깃은 목을 둘러싸는 부분과 앞에서 교차하는 부분, 또한 교차되어서 풀어지지 않도록 하여 묶는 의미의 포괄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다.

앞에 있어서 袷이란 명칭이 통일되게 사용되어졌으며 그 의미가 깃이 앉는 부분, 깃과 길에 붙는 부분으로 정의 내려져 있다<表 3>.

소매는 그 길이와 소매통의 大·小에 따라 窄袖, 廣袖, 短袖, 直袖, 筒袖 등의 여러 형태가 있으나 그 중 漢代에서 널리 통용되었던 소매 형태의 부위별 명칭만을 정리하였다<表 4> <圖 5>.

13) 張末元, 「漢朝服裝圖樣資料」, 金英淑譯(서울: 東洋服飾研究院, 1984), pp. 175~177.

14) 周錫保, 前掲書, p. 90. 師古曰, 「諸於, 大掖衣, 即襦衣之屬」, 婦人穿有 襦之袴, 名曰「窮袴」.

15) 衫本正年, 「東洋服飾史論攷」, (東京: 文化出版局, 昭和 54), p. 22.

〈表 2〉 깃의 명칭

명 칭	특 징	출처문헌
㉠ 領	· 깃의 총칭(목을 둘러싸는 부분) ¹⁾ · 목을 막는다는 뜻 · 옷의 전체를 볼때 목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端首를 의미	1) 釋名
㉡ 襟	· 앞에서 교차하여 바람이나 추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 ¹⁾ · 특히 깃의 아랫부분(교차된 부분) ²⁾ · =禁, 衿, 皆	1) 釋名 2) 爾雅
㉢ 衿	· 領의 아랫부분에 해당 · 交(옷이 교차되는 부분) ¹⁾ · 衿(상의에 붙은 작은 띠) ²⁾	1) 方言 2) 爾雅
㉣ 紵	· 깃이 교차되어 열리지 않도록 묶는 끈 ¹⁾ · 상의에 연결끈(끈으로 묶어 여미는 장치) ²⁾ · 禁(막아서 풀어 헤치기 어렵게 한다)=系 ²⁾	1) 釋名 2) 說文
㉤ 系	· 의복의 여밈새가 열리지 않도록 하는 끈 ¹⁾ · =繫(서로 연계시킨다는 뜻)	1) 釋名

〈表 3〉 섶의 명칭

명 칭	의 미	출처문헌
衽	· 깃이 붙는 부분 · =樓 ¹⁾ · =裳際 ²⁾	1) 方言 2) 禮記

〈表 4〉 소매의 부위별 명칭

명 칭	의 미	출처문헌
㉠ 袂	· 掣(벌어진다는 뜻) ¹⁾ · 팔꿈치의 굽힘과 펴는 작용을 용이하게 하는 공간의미	1) 釋名
㉡ 祛	· 속이 비다. 손이 나오는 곳 · =裏 ¹⁾ =窠 · 袂의 바깥쪽 개구부 ²⁾	1) 說文 2) 釋名
㉢ 袖	· =由 ¹⁾ · 속이 그곳(袖)를 경유해서 출입하는 곳 · =受(그것을 갖고 손을 받는다)	1) 釋名

中國 漢代의 襦에서 보여지는 장식의 형태는 다양하다(表 5)는 부위에 따라 그 장식의 형태를 정리한 것이다(圖 6, 7, 8, 9).

(2) 魏·晉·南北朝時代의 襦

이 시대에 이르러서 중국복식은 漢代의 복식에 胡服的 요소가 뚜렷이 보이기 시작한다.

南朝女子服飾의 특징은 上小下大한 것이며 交領 上襦에 裙裳을 착용하여 일습을 이루었다(圖 10

>. 또한 上衣에는 襦·衫을 입고 下衣에 長裙이 일반적이었으며 襦와 衫은 그 소매와 몸통의 크기가 넓은 것과 좁은 것이 병용되었다.¹⁶⁾(圖 11) 南朝의 일반적인 남자복장은 衫·襖(襦)·半袖·褲·裙 등이 있다. 또한 가난한 자는 보통 衫 또는 襦褲만을 입고 겨울을 나기도 했으며 襖衣로 襖·衫·褲을 입기도 하였다. 또한 袴는 홑옷으로 특히 소매가 곧아 漢代의 袴와 같으며 옛날사람들은 보통 衫과

16) 周錫保, 前掲書, p. 147.

〈表 5〉 襦의 장식형태

명 칭	장식부위	형 태	출처문헌
㉠ 幫	깃	· 깃 주위에 가장자리를 과상형으로 장식한 것(圖 6) 참조	
㉡ 襦掩	등술기	· 緇에 매달은 것 ¹⁷⁾ · = 襦 · 衿과 닮은 경향(圖 7) 참조	1) 방언 (方言)
㉢ 交輸	아랫단 부 분	· 삼각형의 형태 · (圖 8) 참조	
㉣ 襪	옷자락	· 袷나 남자의복의 아래장식 · (圖 9)	
㉤ 裾	뒤옷자락	· 曲裾(옷의 뒷자락이 곡선의 형태) · = 裾 ¹⁸⁾	1) 釋名
㉥ 緣	옷 의 가장자리	· 깃, 소매, 옷단의 장식 · = 純 ¹⁹⁾ · 옷의 가장자리 장식 ²⁰⁾	1) 爾雅 2) 郭注
㉦ 紕	緣의 외측	· 緣의 외측에 다시 가장자리 장식을 붙인 형태 · 옷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옷의 테두리를 풀리지 않게 함 ²¹⁾	1) 說文

襦를 입고 아래에는 袴를 입었으며 겉에는 반드시 裙을 입어 이를 禮儀로 여겼다. 이 밖에도 白衣가 있어 평민의 복장으로 착용되었으며 그 길이는 일정치 않았으나 이 역시 윗부분이 간소하고 아래에는 풍부한 형태를 취하였다.¹⁷⁾ 北朝 男子의 衣服으로는 袴褶制 혹은 袴襦制가 기본이었다. 그 당시 袴褶制는 중국에서만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北方少數民族 사이에서도 착용되었다.¹⁸⁾

北朝는 南朝와 달리 窄袖가 많이 보이고 있으며 위의 褶과 더불어 아래에는 小口袴이 착용되었고 이는 그들이 자주 초원에서 말을 타고 다니기에 이러한 복장을 必要로 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붉고 푸른색의 窄袖와 靴·帶의 胡服은 말타고 활 쏘는데 편리하였고 특히 노획물을 휴대하는데 필요한 帶는 실용성을 갖춘 것이다. 또한 여민의 형태는 漢族과 달리 左衽으로 나타난다.¹⁹⁾〈圖 1 2, 13, 14, 15, 16〉

(3) 隋·唐의 襦

隋는 5胡16國의 하나에서 立國한 만큼 그 기본구

조는 胡服을 平民服으로 하고 있다.²⁰⁾ 그러나 隋代의 服飾이 北朝와 다른점은 南北의 통일로 南朝에서 입었던 漢代樣式이 隋나라의 服制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北朝式과 漢代의 이중구조가 실시되었다.²¹⁾

唐은 중국 문물의 最盛期이고 이때에 이르러 당은 그 복식제도가 團領으로 많이 변한다. 庶民은 襦·袴를 기본으로 하였다(圖 18). 唐代의 여자들은 襦위에 치마를 입고 앞에 장식끈을 매어 늘어뜨리며 袷를 걸치거나 半臂를 입기도 한다(圖 17)〈圖 19〉.

隋·唐時代 一般服飾에서 庶民은 보통 하얀색의 服色을 사용하였으며 士人들이 입는 옷으로 襪衫이 있다. 이 襪衫은 안에다 입은 짧은 衫이 아니고 비교적 긴 衫이며 단지 밑에 橫襪을 더한 것 뿐이다. 이 외에 平民服으로 褐이 있는데 麻 또는 털로 된 긴 것과 짧은 것 두 가지가 있다.²²⁾

隋·唐의 婦女의 一般服飾은 대개가 위에는 襦·襪·衫을 입고 아래에는 타이트한 치마를 입은

17) 周錫保, 上揭書, p. 143~p. 144.

18) 李恩珠, “中國의 袴褶制”, 「安東大學論文集」, 第7輯, 1985, p. 819.

19) 周錫保, 前揭書, pp. 144~146.

20) 金東旭, “周邊國家의 服飾”, 「韓國의 복식」, (서울: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p. 93.

21) 任明美, 前揭書, p. 74.

22) 周錫保, 前揭書, pp. 190~192.

것이다.

2) 韓國의 襦

韓國의 襦는 筒袖로서 아래의 袴와 같이 북방유목민족의 胡服 형태이다(圖 20).

三國(고구려·백제·신라) 以前의 시대적 상황은 계급적 분열과 재산적 차별을 낳아 의복에 있어서도 복잡한 외관을 재촉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서민과 관리가 다르게 되었으나 基本衣로서의 襦에는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본다.

(1) 高句麗의 襦

약 4세기경에서 7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고구려 고분의 벽화인물들이 입은 襦의 공통된 특징은 대체로 直領交襟이고 길이는 엉덩이를 덮을 만큼 길며, 허리에 띠를 두르고, 고름이 없으며 깃과 섹, 소매의 끝동 등에 禪이 둘러져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시대적으로 漢服의 영향을 받아 衽制에서 左衽과 右衽이 혼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보인다(圖 21). 남·녀의 襦에서 가장 표준적인 것은 길이가 엉덩이를 덮어 내려오고 직령의 左衽이며 소매통이 좁고 긴 것으로 이것은 문헌상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이다. 고구려의 여자 襦는 소재와 色, 문양 등도 다양하였으며 그 名稱은 소매의 모양에 따라 大袖, 筒袖, 筒袖 등의 名稱이 사용되었고 衫 또는 上衣라는 뜻에서 간단히 衣라 하기도 하고 袍와 비슷하다 하여 長襦라고도 하였다.²³⁾ 또한 三國史記 雜志 色服條에 「高麗王服 五采… 衫 筒袖袴大口…」의 기록이 있어 고구려의 왕도 소매통이 좁은 衫을 입고 통 넓은 바지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고구려의 襦가 上·下·尊·卑를 막론하고 그 기본의 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百濟의 襦

梁書와 南史에 「複衫」에 대한 기록에서 이것은 두겹으로 된 평민들이 입는 襦로 그 형태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襦와 같이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허리에 띠를 매는 것으로 생각되며 관직자

들은 禮服으로 그 複衫위에 袍를 입었다고 본다. ²⁴⁾ 文獻通考²⁵⁾의 기록을 보면 백제의 부인옷이 袍와 같으며 소매가 조금 크다는 것으로 백제 여인 옷은 길이가 길고 소매가 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무령왕릉의 발굴로 백제의 衣服을 추정하는 바 그 上代服飾은 북방계 의복으로서 그 기본형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문헌에 보이는 衣似袍와 複衫의 기록을 통하여 볼 때 백제는 襦와 袴를 착용하고 그 위에 帶를 띠었으며 특히 袍帶의 色으로 官民을 구별하고 上下의 等威를 가렸으며 평상시에는 袍와 襦를 입고 儀禮적으로 袴위에 裳을 덧 입었을 것이며 袍의 착용도 있었다고 본다.²⁶⁾

(3) 新羅의 襦

복식에 보이는 신라의 모습은 좀 더 근로적이고 또한 무풍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창의적 복식에 특히 풍부한 것을 보여준다.²⁷⁾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唐制를 들여왔다고 해서 모든 국민의 복식이 唐制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수백만 인구중 소수의 신라인 관리를 위한 視務服에 그쳤던 것이고 그 나머지 백성들은 신라고유의 襦袴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新唐書 東夷傳 新羅條에 나타난 「男女褐袴 婦長襦…」에서 볼 수 있듯이 신라인의 복식은 褐袴 즉 襦袴와 부인은 長襦를 착용하였으며 이는 그 복식의 기본형이 북방계 의복으로 고구려, 백제와 함께 계통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신라의 복식을 전할 수 있는 隍城洞出土 土傭에서도 盤領의 短上衣에 가슴까지 오는 長裙을 착용한 女子像을 볼 수 있다. 이미 隋·唐의 服飾影響을 받은 龍江洞 출토 여자상이 廣袖形態인데 반해 황성동 출토 여자상은 窄袖와 細身, 우리고유의 머리양식인 北襦를 하고 있어 일반백성들은 신라고유의 北方服飾인 髻袴, 襦裳 또는 고유의 袍를 착용했을 것으로 본다.²⁸⁾

3) 日本의 襦

23) 柳喜卿, 「韓國服飾文化史」, (서울: 教文社, 1982), p. 49.

24) 「한국의 복식」, 前掲書, p. 67.

25) 「百濟婦人衣似袍 而袖微大…」

26) 柳喜卿, 前掲書, p. 57.

27) 李如星, 前掲書, p. 102.

28) 구인숙, “경주황성동고분출토 土傭의 복식사적 의미”, 「服飾」, 제13호, 한국복식학회, 1989, pp. 21~35.

의복이 자연적 환경조건과 밀접한 관계임을 생각해 볼 때 우선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이 일본은 약 1,000여개의 大小섬으로 이루어진 列島라는 것이다. 북은 寒帶로부터, 南은 亞熱帶에 이르는 다양한 기후조건은 태평양쪽을 흐르는 黑潮海流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多雨, 多濕하다.

서기 2·3세기 貫頭衣와 橫幅衣가 주류를 이루던 日本의 服色에서 서기 4·5세기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기마족이 건너가 원주민을 정복하고 그들이 지배층으로 등장하며 그 복식이 한반도 一色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 유물로 일본 古墳들레에 세우는 埴輪 중에 당시의 인물상이 많이 출토되었다. 여기에는 물론 일본적인 것도 있으나 다습한 일본의 기후때문에 바지가 넓어지는 등의 소소한 변모는 있어도 그 대체적인 제도는 4~5세기부터 7~8세기까지의 한반도와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일본의 하니와는 한반도 복식의 여러양식이 混合해서 영향을 받게 되므로 고구려식, 가야식, 신라식 등이 혼용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²⁹⁾ 日本의 埴輪에 나타난 복장을 살펴보면 衣의 平服은 남·녀 공히 짧은 筒袖이며 左衽이 압도적으로 많고 한개 或은 두개 정도만 끈으로 묶었고 襟의 모양은 盤領 또는 直領이다.³⁰⁾ 따라서 埴輪의 服裝 또한 대표적인 胡服으로 볼 수 있으며 北方系에 속하는 襦袴이다(圖 22) (圖 23). 이후의 飛鳥·白鳳時代의 복식은 中宮寺의 天壽國繡帳에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襦도 男·女 모두 그 형태가 盤領이며 그 길이는 허리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길이의 襦이며, 허리에 帶를 매고 正面에서 늘어뜨리고 있다. 이는 앞서말한 埴輪人物像과 고구려벽화에서 나타난 복식과 큰 차이가 없고 다만 左·右의 몸판이 정면 中央에서 합해진 것과 작은 끈, 고름이 보이는 것 등의 차이만이 있다. 이러한 襦가 窄袖보다 조금 넓은 모양으로 변하는 것은 高松塚古墳壁畫의 여자군상 上·下의 형태에서 더욱 잘 나타나고 있다(圖 24). 이 벽화에서 나타난 女子군상의 襦는 모두 直領에 左衽으로서 埴輪人物像이나 천수

국수장의 반령과 다른 모습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통복장인 直領과 左衽의 服裝을 받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일본은 7~8세기에 들어와 奈良時代에는 중국식이 가미되고 있다. 이 시대에는 日本 古代文化의 寶庫라 할 수 있는 正倉院의 服飾이 현재 남아 있어 그 당시의 상류생활과, 특히 복식품의 대부분이 唐나라와 한반도에서 들어간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正倉院의 服飾을 겉옷과 속옷으로 구분짓고 다시 그것을 上衣와 下衣로 나누어 보면 겉옷의 上衣로는 袍와 襖子, 襦, 衣, 衫, 半臂, 肩衣, 襜이 있고 下衣로는 袴와 裙(裳)이 있다. 속옷류로는 汗衫, 禪, 水禪, 犢鼻가 있다. 원래 襖子는 防寒用 衣로써 冬服으로 착용하며 袍보다는 짧아 활동하기 편하여 武官의 表衣로도 착용하고 兵士들도 착용하였다.³¹⁾ 그러나 원래의 襖子는 襦보다 길고 袍보다는 짧은 의복³²⁾으로 명칭되어 있고, 또한 原田淑人の 「襖子는 袍의 일종이다」라고 한 정의로 명칭은 襖子이나 그 형태와 치수가 襦에 가까운 것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창원의 襖子는 홑옷과 겹옷, 솜옷의 세 종류가 있으며 그 형태는 盤領, 혹은 直領, 筒袖, 右衽이었으나 左衽도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명칭은 袍로 되어 있으나 다른 袍와는 별개의 모양의 上衣로 생각되는 의복이 있었으니 이것들이 椽布襖子和 布袍, 香梁縮袍이다. 우선 布袍는 정창원에 있는 袍의 특징인 盤領, 筒袖에 비해 直領, 廣幅의 소매가 붙어 있으며, 椽布襖子 또한 보통 筒袖의 오자와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直領, 廣幅의 소매가 붙는다. 香梁縮袍 또한 앞서말한 埴輪의 복식과 흡사하다. 左衽으로 입도록 만들어졌는데 직선 것으로 무가 달리고 쉼이 대단히 넓으며 형태상으로는 조선초기의 저고리와 흡사하다(圖 25).

이 외에도 그 크기면에서 襦에 가까운 것이 單과 吳女가 착용한 背子 안에 입는 上衣가 있다. 이들은 모두 直領과 廣幅의 소매가 특징이며 吳女의 上衣는 曲배래의 경향을 보인다(圖 26) (圖 27).

그 밖에 속옷류의 衫은 그 형태에 있어서 窄袖이

29) 金東旭, 前掲書, pp. 10~11.

30) 杉本正年, 前掲書, p. 47.

31) 關根眞隆, 「奈良朝服飾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昭和 49), p. 98.

32) 大漢和辭典, 前掲書, p. 10715.

며 홑옷으로, 그 크기에서 볼 때 襦보다 작으며 右衽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매듭 단추를 단 것도 있다. 다음의 <表 6>는 正倉院의 衫 중 치수의 확인

이 가능한 것중 소매가 있는 것만을 정리한 것이다.

<表 6> 正倉院에 있는 衫의 종류 및 형태

명 칭	치 수 (단위 : cm)					특 징
	· 옷길이	· 뒷폭	· 소매길이	· 소매넓이	· 걸십넓이	
① 布衫 ¹	50.5	23	22	15.7	8.5	· 右衽直領 · <圖 28>
② 白盤布衫	81.5	35	34	23.5	20.5	· 左右盤領 <圖 29> · 양옆이 11.5cm터져있음(옆트임)
③ 布衫 ²	79	25.5	51	29	13.5	· 左右盤領 · 소매와 깃, 가슴윗부분에 붉은색 명주를 대었음. · 옆트임 14cm
④ 婆理汗衫	80	24	45	17	18	· 左右盤領 <圖 30> · 옆트임 38cm
⑤ 白純衫	76	27	52	17	25	· 左右盤領 <圖 31> · 옆트임 32cm
⑥ 布衫 ³	?	29.5	50	20	15	· 左右盤領 <圖 32> · 소매, 가슴윗부분, 깃에 다른색의 천을 대었음
⑦ 醉胡汗衫	107	40	64	19	18	· 左右盤領 · 옆트임 40cm

이상에서 본 日本服飾의 襦의 形態는 北方胡服에서 비롯된 襦가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유입되었고 기후적 조건에 따라 그 후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IV. 結 論

以上으로 韓國과 中國, 日本의 4~8세기에 걸친 服飾中 襦로 국한하여 그 발생과 交流를 고찰하였다.

이 東北아시아 지역의 三國은 공통적으로 北方遊牧騎馬民族文化 즉 스키타이계 복식문화권에 속하는 民族으로 胡服形態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基本服飾에 하나인 襦 또한 筒袖의 허리아래까지 내려오고 臂部線을 덮는 길이에 帶를 매는 窄袖肢體의 복식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음은 고찰 내용의 결과이다.

1. 東北아시아의 襦는 그 發生을 유라시아 대륙 북방에서 비롯된 스키타이문화권에서 채울 수 있다. 행동이 간편하고 기마복으로 적합하였던 襦袴

의 胡服은 스키타이문화권의 세력확장으로 주변국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교류를 통하여 전파하였다. 그리하여 몽고를 거쳐 만주, 한반도를 지나 일본에까지 그 복식형태를 전하였다.

2. 中國의 襦는 원래 廣袖의 右衽型이며 裳을 착용하였다. 그러나 활동적인 胡服은 漢族의 服飾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漢代에 나타나는 襦의 종류로는 褶, 禪襦, 衫, 候頭, 澤, 袿 등의 여러가지가 있으며 겹옷과 홑옷의 두가지 형태로 크게 나누어 질 수 있다. 또한 깃의 명칭으로 領을 비롯하여 襟, 衿, 給, 袷 등의 기록과 소매에는 袂, 袪, 袖 등으로 그 부위별 명칭을 사용하였다. 襦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장식의 형태로 幫, 襦掩, 交輸, 織, 緣, 紵 등이 있어 깃과 등술기, 옷단, 소매 등에 다양한 장식이 보여진다.

3. 韓國에서의 襦는 남·녀 모두 비슷한 형태로 전형적인 북방호복 계통이다. 이 스키타이인의 복장 형태는 고대 西아시아에서 동아시아로 전파되고 다시 最東方의 고구려에 유입된 것이다. 그리하여 筒袖의 直領交衽이며 그 길이가 臂部線까지인

韓國의 襦 형태를 나타내었다.

4. 日本은 기후로 인하여 南方的 要素가 강한 貫頭衣와 橫幅衣가 原始衣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복식의 형태는 4~5세기 한반도의 영향으로 변화를 맞게 된다. 그리하여 埴輪에서 알 수 있듯이 胡服의 형태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 이후 正倉院에 보관된 유물을 통하여 襦를 살펴보면 衫을 비롯한 홉옷과 특이한 형식의 布袍류와 襖子가 보인다. 이것은 直領과 左·右襟의 혼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상으로 4~8세기까지의 三國의 襦를 고찰한 결과 그 복식의 원류가 스키타이 문화권이고 北方 胡服의 복식형태이며 筒袖와 右襟, 左襟의 혼용, 臂部線까지의 길이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祖型에는 원류를 함께 하고 있으며 같은 문화권안에서 복식의 교류를 가져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키타이 문화권인 북방유목기마민족의 복식이 호전적인 성격으로 전파, 교류를 가짐으로써 몽고를 거쳐 東으로 고구려를 시작으로 한반도를 내려와, 전통문화와 융합되어 다시 일본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參 考 文 獻

- 高福男, 「韓國服飾의 類型과 樣式」, 서울: 集文堂, 1987.
- 高福男·趙孝順, “東北亞細亞 古代服飾의 比較研究”, 「明大 論文集」, 제13집, 1982, pp. 307~336.
-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9.
- 金文子, “古代韓國服飾의 源流에 關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84.
- 金英淑, 「韓國服飾史 資料選集: 上古·高麗篇」, 서울: 민족문화사, 1985.
- 金富軾, 「三國史記」, 서울: 학원출판공사, 1983.
- 무로바시, 「大漢和辭典」, 동경: 大修館書店, 昭和 31.
- 文定昌, 「韓國古代史」, 서울: 인간사, 1988.
- 閔斗基, 「日本の 歷史」, 서울: 지식산업사, 1976.
- 朴京子, “高松塚 벽화인물복식의 복식사적 연구”, 「誠信女子大學校 生活文化研究所 論文集」, 창간호, 1987, pp. 127~176.
- 朴時仁, 「알타이文化史 研究」, 서울: 探求堂, 1970.
- 石宙善, 「韓國服飾史」, 서울: 보진재, 1971.
- 成樂成, 辛勝夏譯, 「中國通史」, 서울: 宇種社, 1981.
- 유송옥, “古代 東·西洋 上衣 비교연구”, 「服飾」, 제3호, 한국복식학회, 1980, pp. 29~46.
- 유희경, 「韓國服飾文化史」, 서울: 교문사, 1981.
- 李如星, 「朝鮮服飾考」, 서울: 白陽堂, 1947.
- 李恩珠, “韓國의 袴褶制”, 「安東大學 論文集」, 제7집, 1985, pp. 815~829.
- 李萬烈, 「三國時代史」, 서울: 지식산업사, 1976.
- 구인숙, “경주황성동고분출토 토용의 복식사적 의미”, 「服飾」, 제13호, 한국복식학회, 1989, pp. 21~37.
-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攻, 古代編」, 東京: 文化出版局, 1979.
-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攻, 中世編」, 東京: 文化出版局, 1984.
-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丹青圖書有限公司, 中華民國 65.
- 中華文物集刊, 「服飾上篇」, 中華民國 75.
-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81.
- 關根眞隆, 「奈良朝服飾の研究」, 동경: 吉川弘文館 刊行, 昭和 49.
- 林已奈夫, 「漢代の文物」, 京都: 京都대학 인문과학 연구소
- 한국문화재보호협회, 「한국의 복식」, 1982.
- H.H. Hansen, 「Mongol Costume」, KØBeNHAVN, 1950.
- 深作光貞·相川佳子子, 「衣の文化人類學」, 京都: PHP 研究所, 1983.
- 深作光貞·相川佳子子, 「續衣の文化人類學」, 京都: PHP 研究所, 1983.
- 栗原·弘·河村まち子, 「時代衣裳の縫い方」, 東京: 源流社, 昭和 59.
- 上海市戲劇學校中國服裝史研究, 「中國歷代服飾」, 上海: 學林出版社, 1984.
- 「南史」

「新唐書」
「增補文獻備考」

ABSTRACT

A study on the origination and Transmission of Yu(襦) in Northeast Asia.

—from the 4th Century to
the 8th Century—

Cho Sun-hee, Park Kyung—Ja

Dept.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Yu(襦) was a type of dress worn on the upper part of the body which was commonly used in Northeast Asia. It was originally used by the Northern race for the need of courtesy as well as protecting cold.

It was believed that Yu in Northeast Asia, which was called Kaftan, was came from Scythai lived in North Eurasian land around the Black sea. Scythians were the first-formed horse-riding race in the world and their civilization influenced those of far Asiatic sector along the steppe route. As their power expanded, their costume culture transmitted to the East(China, Korea, Japan).

The upper garment, Yu, was characterized by the left-sided collars, narrow sleeves belted at the waist to the length of the hip line and the tight trouser on the lower part, which we commonly called HoBok(胡服) style.

1. Yu in Northeast Asia was originated from the Eurasians, Scythian Culture. Being exchanged, active style costumes were widely used among Chinese, Koreans and Japanese throughout centuries, including 4~8 century.

2. Chinese Yu had a style of wide-sleeves and right-sided collars. The traditional costumes of Han race are consisted of wide-sleeved Yu on the

upper and long-skirt on the lower part of the body. Before the adoption of HoBok during reign of King Jo Mooryung in 307. B.C., HoBok style had already found in the remains since the Sang period.

There were various names among Yu during the Han period. Seup, Seon Eui, Kye, Kyu were one of the styles and several names were meant for collar and sleeves.

During 4~8 centuries, clothes of right-sided collar were found, superior to that of left-sided and narrow sleeves were widely used both the royal and the humble. Various styles of decoration were seen in Yu around neck, back and sleeves comparing other nations.

3. Yu, in Korea, was typical style of Northern-bound HoBok. Both men and women had similarity in Yu style, narrow sleeves, left-sided collar, belted at the waist and to the length of hip line. Influenced by Han race, in the 4th~8th centuries, dual system of collar was found.

But we cannot see major change in Yu and finally was connected to the present.

4. The original design of the Japanese costumes was not similar to that of Northern nomadic hunting race, which was suitable for horse-riding activities.

Owing to the climates along the island, we could see various conditions ranging from the cold and to the warm. Influenced by the climates, pulling over the neck(Pancho style) were major design in Japan.

As Korea was advanced earlier than Japan, Korean landed Japanese territory showing clothes. So primitive costumes had changes in style. During the 4th~8th period. The Korean mode was found in Haniwa(which was built to make sacrifices to the dead King) and costumes in Jeong Chang Won. Among the costumes in Jeong Chang Won, we put 3 or more costumes to the category of Yu characterizing elements of Korea and Tang period.

From the 4th~8th century, China, Korea, Japan

fell into the same cultural category, Scythai.

Styles in Yu among three nations, we saw little differences, basically along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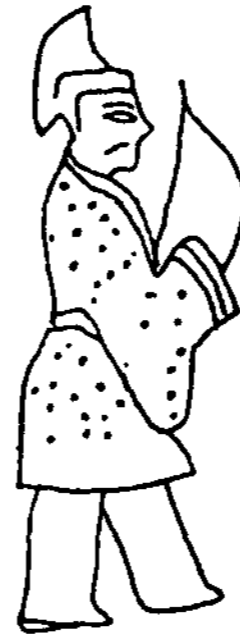
Originated from the West Asia, Yu was tran-

mitted to the far East changing Chinese costumes, Koreans melted it into the traditional elements and then influenced Japan.

<圖>



<圖 1> 스키타이인의 服飾
「The Encyclopaedia of World Costume」 p. 52



<圖 4> 褶·大誇
(畫像石 孝堂山)



<圖 5> 소매(袂·祛·袖)
畫像石 武氏左右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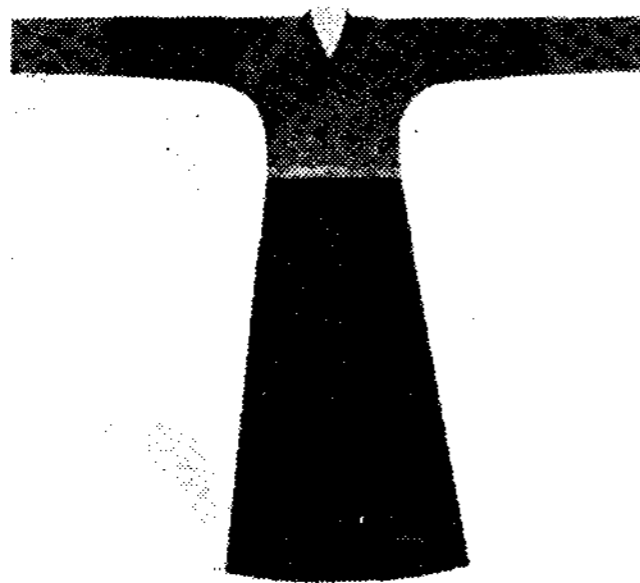
<圖 2> 東周 남자복식 (출처: 中國歷代服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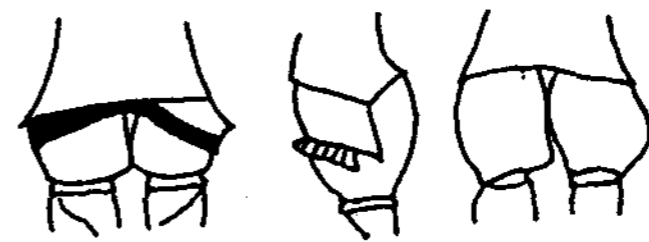
<圖 6> 裳(畫像石 沂南)



<圖 7> 襜褕(矢印)
畫像石 沂南



<圖 3> 漢代婦女的 襦裙 (출처: 中國歷代服飾)



<圖 8> 交輸 陶俑 咸陽楊家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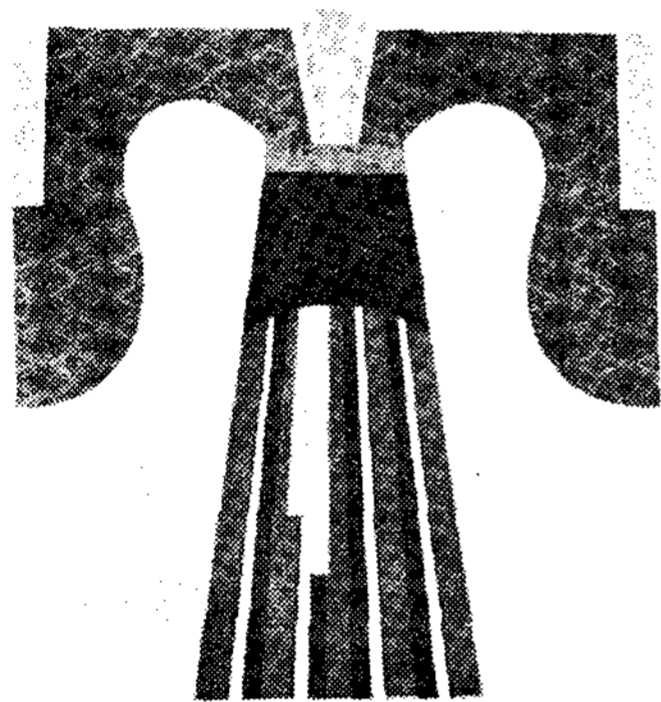
<圖 9> 襪(畫像石 南陽)



〈圖 10〉南朝服飾 (출처: 中國古代服飾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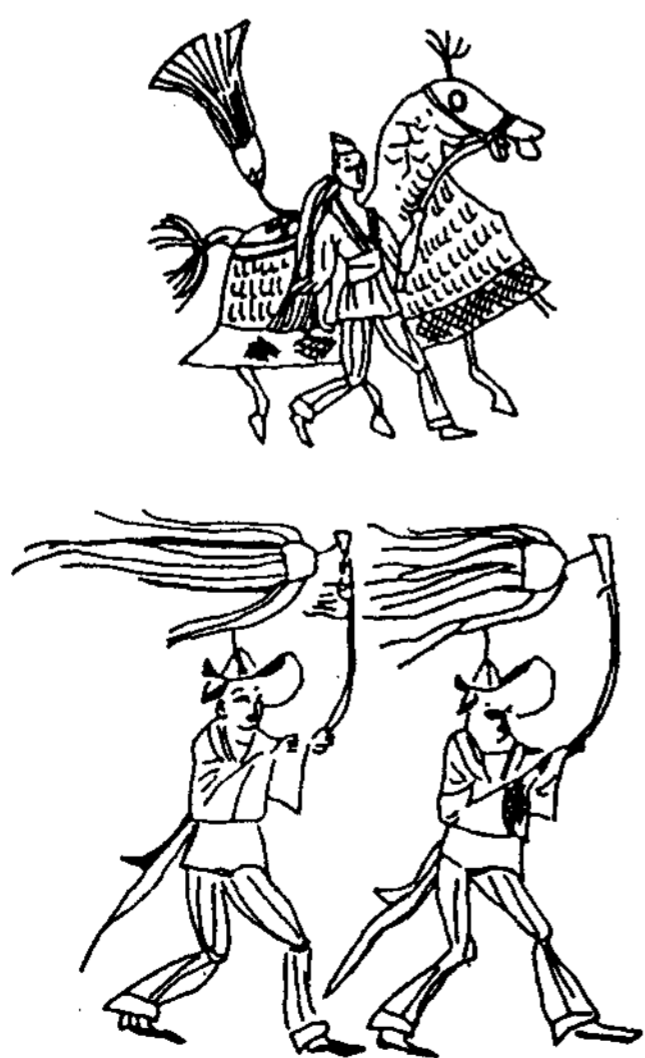
〈圖 13〉褶衣·筒褲 北魏騎馬樂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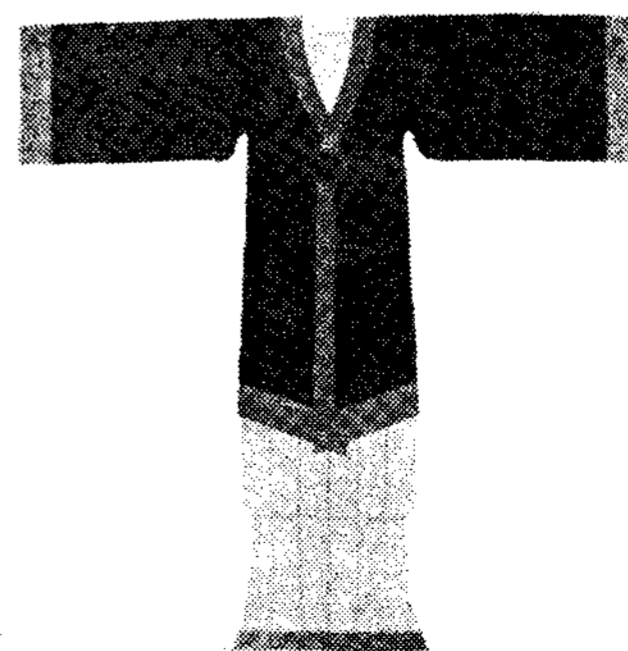
〈圖 11〉大袖衫 (출처: 中國歷代服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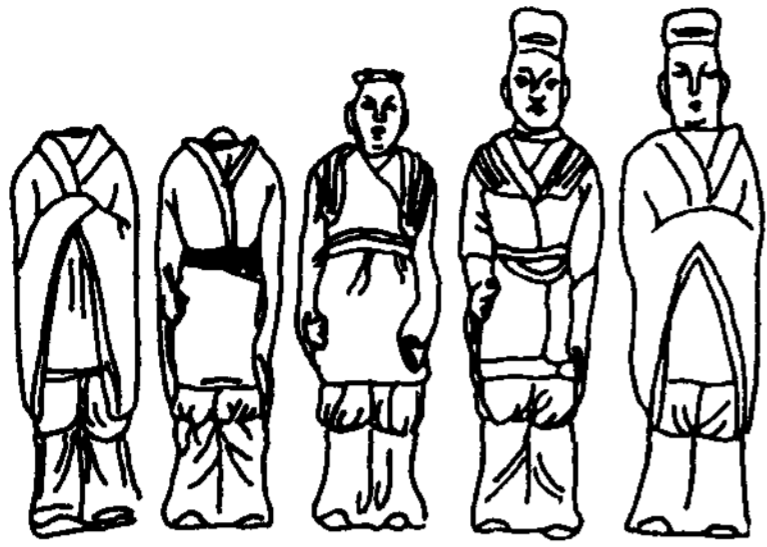
〈圖 14〉婦女的衫裙·北朝時代
(출처: 中國歷代服飾)



〈圖 12〉南朝·河南鄧縣出土畫像磚 「對襟褶衣…」



〈圖 15〉袴褶·北朝時代
(출처: 中國歷代服飾)



〈圖 16〉河北省橋四座北朝墓
「文物」84-9 pp. 35-37



〈圖 19〉唐代襦裙·半臂
(출처: 中國歷代服飾)



〈圖 17〉隋代女服·短襦長裙
(출처: 中國歷代服飾)



〈圖 20〉雙楹塚人物圖
(출처: 한국미술전집 4)



〈圖 21〉수산리고분 귀인
(출처: 한국미술전집 4)



〈圖 22〉埴輪女子
(출처: 日本の美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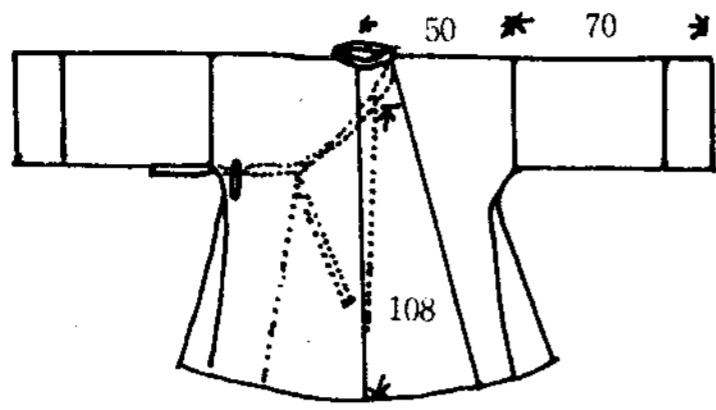
〈圖 23〉埴輪男子
(출처: 日本の美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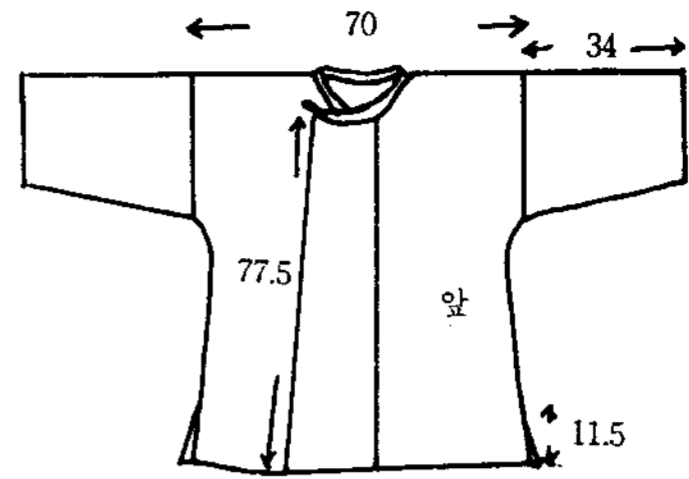
〈圖 18〉唐代服飾
小袖短衣, 半臂, 長褲(敦煌三二三窟唐壁畫)



〈圖 24〉高松塚人物服飾東壁
(출처: 朴京子, “高松塚人物服飾”의 服飾史的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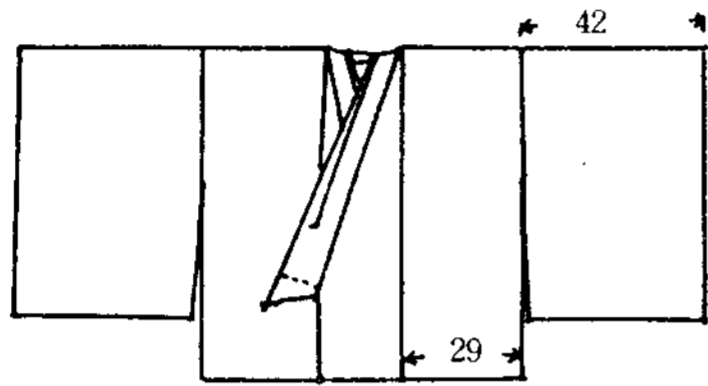


〈圖 25〉香染純袍(출처: 奈良朝 服飾の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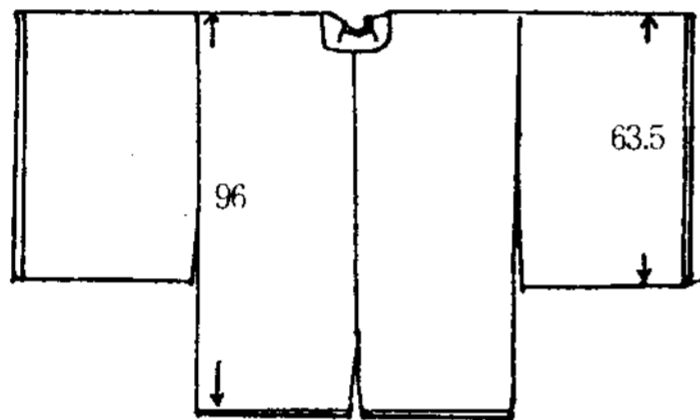


1/20축도

〈圖 29〉白盤布衫(출처: 奈良朝 服飾の研究)



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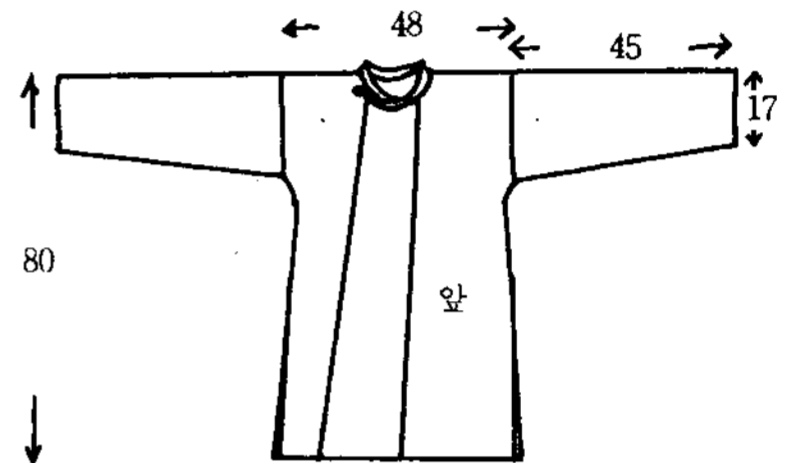


後

〈圖 26〉單의 前·後面(출처: 時代衣裳の縫い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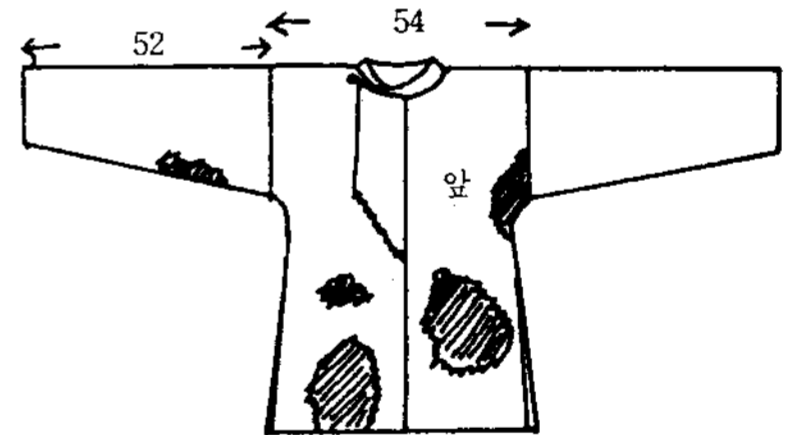


〈圖 27〉吳女가 背子속에 입는 上衣 복원도
(출처: 時代衣裳の縫이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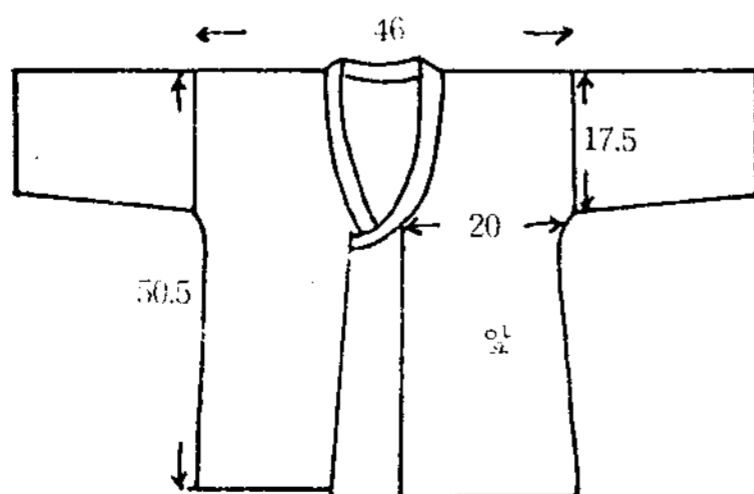
1/20축도

〈圖 30〉婆理汗衫(출처: 奈良朝 服飾の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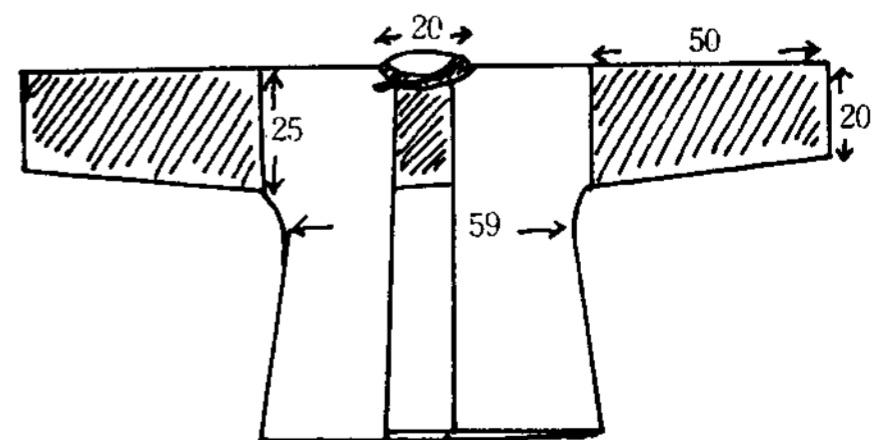
1/20축도

〈圖 31〉白純衫(출처: 奈良朝 服飾の研究)



1/10축도

〈圖 28〉布衫(출처: 奈良朝 服飾の研究)



〈圖 32〉布衫(출처: 奈良朝 服飾の研究)